

관에서는 비르지니의 덕성에 조금이라도 경의를 표하고자 이렇게나마 지시했던 것일세. 그러나 그녀의 시신이 이 산 밑에 당도했을 때,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행복을 안겨 주었던 오두막들이, 이제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오두막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장례 행렬은 온통 흐트러졌다네. 찬송가와 장송곡은 멈췄고, 들판에서는 탄식과 흐느낌밖에 들리지 않았네. 그때 근처 농가 여기저기에서 어린 소녀들이 무리 지어 달려와, 마치 성녀를 부르듯 그녀의 이름으로 신의 가호를 빌며, 비르지니의 관 위에 손수건이며 묵주며 화관 등을 올려두는 모습이 보였네. 어머니들은 그녀와 같은 딸을 달라며 하느님께 청을 올렸고, 사내애들은 그녀처럼 지조 있는 연인을, 가난한 이들은 그녀만큼 따뜻한 친구를, 노예들은 그녀만큼 신량한 주인을 내려주십사 청을 올렸다네.

비르지니가 장지에 도착했을 때,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흑인 여자와 모잠비크의 카프라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관습에 따라 비르지니 곁에 과일 바구니를 놓거나, 근처 나무에 천 조각을 걸어두었지. 벵골과 말라바르 해안에서 온 인도 여인들은 가지가지 새가 가득 들어 있는 새장을 가져와 시신 위에서 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네. 이렇듯 비르지니가 자신의 무덤 주위로 모든 종교를 모았으니, 사랑스러운 사람 한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민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요, 불행한 덕성의